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 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1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(02-2110-5641), 정성훈 사무관(02-2110-4459)

韓-日, 철강업계 불황극복을 위한 해결책 모색

- 제14차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5.14일(화)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과 제14차 한·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함

○ 금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철강화학과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Ryuichi YAMASITA 철강과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, 철강협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음

* 주요 철강 교역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철강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, 일본과 양자협의체를 운영중

< 제14차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요 >

○ 일시 및 장소 : '13. 5. 14(화) 08:30-14:00, 롯데호텔

○ 주요 참석자

- (한국) 산업부 철강화학과장, 한국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 등 39명
- (일본) 경제산업성 철강과장, 일본철강연맹, 신일본제철 등 22명

□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

①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철강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

② 동남아시아 철강시장 성장전망, 투자전략, 비관세장벽 동향 논의

③ 한-중-일 FTA 추진에 따른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함

□ 우선 양측은 한·중·일 3국의 철강시장 공급과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, 공급과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양측 인식 공유가 필요함을 논의

* '12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량(조강생산기준, OECD)은 5.4억톤으로 추정되어 '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중이며 그 중 60% 이상(3.3억톤으로 추정)이 한·중·일 3국에 집중

○ 건설, 자동차, 조선 등 수요산업들의 부진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향후 OECD, WSA(World Steel Association)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

□ 아울러 동남아시아 철강시장에 대한 양측의 향후 전망을 교환하고 무리한 투자 및 판매로 인해 레드오션化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

* 동남아시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('13) : 6.2% (세계 평균대비 2.2%P↑)
* 동남아시아 철강생산('13)은 2,089만톤에 불과하지만 철강수요('12)는 5,837만톤에 달해 3,748만톤의 철강재를 수입에 의존
* '12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은 7.4백만톤으로 전체 수출중 24.4% 차지

□ 한편 양측은 한,중,일 3국간 또는 양자간 FTA 추진에 따라 양국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협조방안을 논의

* 한국, 일본은 WTO 철강 무관세 협정에 따라 2004년 이후 철강제품 무관세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중국, 일본 등 주요 철강 교역국과 양자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국 철강산업의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

○ 양국 간 통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철강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성훈 사무관(☎ 02-2110-44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